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JANUARY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5



### “함께해서 더 따듯했다” 2025 뉴욕 동창회 송년의 밤 성료

푸른 열정으로 뉴욕의 겨울을 녹이다! 지난 12월 6일 오후 4시, 뉴저지 포트리(Fort Lee) 소재 더블트리 호텔 그랜드볼룸이 16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47대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병순, 사회 82)가 마련한 '2025 송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7월 취임한 김병순 회장을 필두로 이진환 부회장(공대 83), 이창길(인문 85), 한윤미(사대 84), 박수형(법대 99) 임원진은 두 달간 홍보와 섭외에 발을 벗고 뛰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행사장 곳곳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문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 신임 감사 선임: 이영범(공대 71) 동문
- 공로패 증정: 김정필 전 회장, 권정덕 전 이사장

특히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장학금 수여식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학생 동문 4명과 동문 자녀 3명 등 총 7명에게 각각 \$3,000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서대대학교의 이름을 잇는 미래 인재들을 뜨겁게 격려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에서는 음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테너 박종현, 소프라노 송가은, 바이올린 진요섭, 피아노 곽예인 동문이 선사한 정상급 선율은 장내를 감동으로 물들였고,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4부 여흥 시간에는 서울대인만의 '스마트한 즐거움'이 빛났습니다. 임원진이 야심 차게 준비한 4자성어 퀴즈와 초성 잇기 대항전이 열린 것인데요. 4개 조로 나뉜 동문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열띤 경연을 펼쳤고, 재치 있는 답변이 터져 나올 때마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요!"

김병순 회장은 2026년도 행사 계획을 발표하며 "뉴욕 동창회가 동문 여러분의 든든한 고향이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마무리된 이번 송년회는 뉴욕 지역 동문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신년사]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한 골든클럽을 소망하며

■ 골든클럽 회장 김정필 (공대71)

존경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밝은 기운이 회원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3월 신년교례회에서 회장직을 맡아 여러분 앞에 섰던 기억이 선명하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켜보니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먼저, 골든클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정해민, 홍종만, 윤현남 고문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클럽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회원님 한 분 한 분께 더 자주 연락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골든클럽은 골프대회를 비롯해 룽우드 가든 나들이, 캣츠킬 단풍 관광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함께 웃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새해, 골든클럽은 더욱 풍성해지겠습니다. 기존의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더 많은 멤버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쇼(Talk Show) 나 깊이 있는 미술관 방문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우리 뉴스레터에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나 삶의 지혜를 담은 글을 기고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연결해 주세요: 주변에 아직 골든클럽의 존재를 모르거나 가입을 망설이는 동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회장단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든클럽은 뉴욕동창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며, 동문 사회의 중심으로서 화합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5년 우수기사

한해동안 여러 회원들이 좋은 글들을 보내주셔서 뉴스레터를 잘 꾸밀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2분을 선정하여 아마존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히틀러가 걸었던 불세출의 길 (김광현)
- \* 무작정 베트남 여행 (조달훈/조승자)

존경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땅 밑에서는 이미 봄의 꽃순이 생명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든클럽도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닮아, 2026년의 첫 문을 여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조했던 안부를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저녁 운전의 불편함이 없도록 작년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행사를 시작하오니 달력에 미리 일정을 체크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회비: 1인당 \$120

#### ■ 주요 프로그램

##### [1부] 보고 및 나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행사 보고 및 투명한 회계 보고 새로운 인연의 징검다리가 될 2026년 신판 주소록 배포 올 한 해의 설렘을 담은 2026년 연간 행사 일정 소개 신입회원 소개

##### [2부] 축하 공연

음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 (출연: 김희재, 김지유, 정지인 동문)

##### [3부] 친교와 여흥

회원님들의 연세를 고려한 즐겁고 편안한 프로그램 가라오케, 빙고 게임,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Raffle)

따뜻한 햇살 아래 오순도순 모여 정을 나누는 잔칫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님들의 밝은 얼굴을 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80세의 벽을 넘어 다시 희망찬 2026년을 마주하며

■ 골든클럽 전회장 홍종만 (공대64)

얼마 전 서울에서 온 친구 편에 와다 히데키의 저서 《80세의 벽》을 건네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80대가 되니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 하시던 선배님들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던 차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노화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화두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 안 되더라도, 혹은 컨디션 난조가 찾아지더라도 실망하거나 고독에 잠식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가족, 친지들과 어울리며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5년여간 성심을 다해 봉사해 온 우리 골든클럽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회장단의 결정과 방향을 존중하며, 저 역시 평화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기쁘게 참여하려 합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젊은 후배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우리 단체가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뉴욕동창회와 골든클럽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립공원(State Park)의 캐빈(Cabin)이나 린투(Lean-to)를 빌려 2박 3일간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거나, 미 동부 인근 크루즈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회장단과 차차 의논해 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6년에는 집에만 머물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 햇볕을 즐기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햇볕을 쬐고 즐겁게 활동할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움츠러들기보다 밖으로 나와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챙기는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2026년을 맞이하며

■ 뉴욕동창회장 김병순 (사회82)

병오년을 맞이하며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2026년에 동창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밑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동창회에 몸담게 된 것도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것이고 회장이 되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 어찌 상황이 그렇게 되어 회장도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월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생각으로 골든 클럽에 들게 되었고 골든클럽에서 김정필 선배님이 골프 총무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님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골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소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골든클럽의 행사에 많은 참여 및 도우미 역할을 하였고 급기야는 골프총무를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창회에도 발을 깊게 넣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장직을 맡고 반년을 지나면서 우규환(사대60) 선배님을 이사장님으로 청빙하게 되고 80년대 학번 동문들을 임원으로 끌어들이며 장학기금 골프대회와 송년회를 치렀는데 이사장님과 부회장인 이진환(공대83) 그리고 한윤미(사대84), 이창길(자연대85), 정희돈(경영88), 박수형(법대 99)의 임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헌신적이고 엄청난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영범(공대71) 동문이 감사직을 수락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젊은 동문들이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관악클럽의 활동을 지속하며 2000년대 이후의 학번 동문들이 소규모로 만남을 가질 때 같이 만나며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 넣어 주는 활동 등을 계속 노력하여 볼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골든클럽 동문들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026년 丙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랫동안 골든클럽 행사에 참여하여 기쁨을 같이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축하 합니다.

골든클럽의 년륜과 함께 최근 회원들의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요사히는 근처 공원에 나가 천천히 걷는 일이 하루일과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힘들이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점점 쉽지 않아짐을 느끼며 한걸음 또 한걸음이 마치 생존과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완주하고 나면 기쁨도 함께합니다. 골든클럽 행사에도 자주 참석 하지못함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매달 발행되는 골든클럽 회보 를 통하여 회원 모두의 소식과 근황을 나눌 수 있음은 골든클럽 회원들의 기쁨입니다.

모든 시간과 정성으로 회보를 준비하고 다양한 행사를 이끌어 주

■ 임호순 (공대52)



시는 전임회장, 현회장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모든회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2026년은 丙午년, 예로부터 활기와 열정, 도약의 기운을 뜻하는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이 기운이 우리 골든클럽 모임에도 힘차게 스며들어 올 한해 활발한 클럽활동을 통한 만남의 인연과 우정을 마음에 새기며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편안, 기쁨이 함께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Myrtle Beach Golf 여행기

이영범 (공대기)



Myrtle Beach의 North Beach Resort에 모여 12월 7일 부터 일주일간의 골프 여행을 시작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Legend Golf Resort에서 총 5라운드의 골프를 즐기는 일정이었다.

**월요일**은 간간이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Moorland GC에서 화창한 날씨 속에 기분 좋은 첫 라운딩을 할 수 있었다.

**화요일** 아침, 베란다에서 바라본 수평선과 낮게 깔린 짙은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은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한 번 떠오른 태양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두 번째로 솟아오르며 붉게 물든 하늘을 만들어 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수요일** 좋은 날씨 속에서 라운딩을 마친 뒤, 와인과 함께 준비된 차돌박이 BBQ 식사를 즐겼다. 흥이 무르익자 천병수 회원의 가라오케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흥겨운 댄스 타임이 펼쳐지며 수요일은 밤이 좋아 시간이 진행되었다. 내년에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 춤추는 파티를 기대해 본다.

**목요일**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불어 아침 출발 때는 제법 쌀쌀했다. 골프장에는 라운딩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골프 카트에 윈드 커버를 씌우고 용감하게 출발하였다. 다행히 곧 기온이 올

라가 여유롭고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는 라운딩을 마친 후 Myrtle Beach 해변을 산책하였다. 파도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 세가락도요(Sanderling)가 종종 걸음으로 우리를 반겼고, 갈매기 떼는 물 위에 떠 있었으며 때로는 비둘기들도 모습을 드러내며 해변의 운치를 더욱 즐기게 해주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는 씨푸드 파티는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었다. 이날은 권영대 회원을 포함한 8명과 연합하여 총 16명이 North Carolina 해변의 특산물인 크랩과 오이스터로 풍성한 디너 파티를 가졌다. 싱싱한 해산물과 와인, 그리고 정겨운 대화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밤이 깊어갔고, 다음 날 출발을 위해 짐을 싸야 함에도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다.

금요일 아침, 첫 번째 티타임으로 호수가 많은 Oyster Bay GC에서 마지막 라운딩을 마친 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매일 저녁 삼겹살, 김치찌개, 차돌박이, 갈비, 미역국 등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홍예경 사모님과, 철저한 준비로 이번 여행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만들어 주신 홍종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특별 기고] 숲가마 '서울 도령'의 눈물과 한(恨): 나의 소년기 회고

■ 이강홍 (상대 60)

압록강의 뗏목과 하얼빈의 백마차, 그 유복했던 기억

일제 강점기 말, 전기관련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네 살 무렵의 풍경이 활동사진처럼 지나갑니다. 압록강 수풍 댐 부근, 거대한 나무들을 묶어 뗏목을 만든 사람들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장엄한 광경이 떠오릅니다. 네 살 겨울에는 두툼한 털옷을 입고 하얼빈의 하얀 말이 끄는 마차에 오르기 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6남매의 막내로 귀염을 독차지하던 시절, 잠에서 깨면 머리맡에는 항상 '미르꾸(캐러멜)'와 '쫄꼬렛', '요강(양갱)' 같은 귀한 간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형의 친구였던 기마순사의 말 위에 올라앉아, 허리에 찬 육혈포(권총)를 만져보며 동네 친구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즐기던 철부지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해방의 환희와 몰려오는 이데올로기의 파도

1945년 8월, 광화문 일대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청 앞에는 흰 옷을 입은 군중이 운집했고, 제대로 된 태극기가 없어 물감으로 급조한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총독부를 향해 노ど처럼 밀려갔습니다. 석조건물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도로 양옆 또랑으로 몸을 숨기던 그 긴박했던 '해방의 현장'을 나는 어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과 일본말이 섞인 구호가 난무했고, 마을에는 좌익 사상에 물든 노동자 단체들의 폭력적인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자동 일대의 기업을 집들을 노린 그들의 공격에 우리 집 유리창은 박살이 났고, 어머니가 곱게 간수해온 뒤주들마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함께 공분했던 기억은 훗날 내가 해병대와 공수훈련에 자원하게 된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 6.25 전쟁의 발발과 인왕산 밑의 비극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안정을 찾아가 싶었지만, 어느덧 밥상머리의 화두는 '38선'과 '로스케(소련군)'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전쟁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아침 방송을 듣고 육군본부로 달려갔던 장교 셋째 형은 부대와의 통신 두절로 허탈하게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하루뿐이었습니다. 인왕산

너머로 포성이 커지더니 밤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고, 곧이어 탈진한 국군 패잔병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큰 솥에 밥을 지어 군인들을 먹였고, 우리 가족은 실탄 없는 총과 검을 봉숭아 밭에 묻으며 긴박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새벽, 중앙청으로 들어온 것은 국군이 아닌 인민군 탱크였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중국어로 그들이 '팔로군' 출신임을 알아차리셨고, 우리 집을 사무실로 쓰겠다는 그들의 요구를 간신히 거절하며 진땀을 빼셔야 했습니다.

7월 12일의 참혹한 밤, 그리고 셋째 형의 행방불명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7월 12일 깊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붉은 완장'들은 아버지와 형들을 팬티 바람으로 끌어내 무릎을 꿇렸습니다. 군인인 셋째 형을 내놓으라는 고성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무자비한 린치가 가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절하셨고 온 가족이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형들을 내무서로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 담을 넘어 피신했던 셋째 형은 이후 보급 임무를 수행하다 서울 탈환 직전 동네 빨갱이에게 잡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수하던 적들이 저지른 야간 처형의 희생자가 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누나 역시 그 여파로 대학 진학의 꿈이 꺾이는 한 맺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숲가마 일꾼에서 다시 재동의 교정으로

1.4 후퇴의 피난길, 모진 매 맞은 후유증으로 운신조차 못 하시던 아버지는 충청도 아산의 배방면 만경산 기슭에서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열 살 막내였던 나는 연고도 없는 타향에서 상주가 되어 아버지를 묻어야 했습니다. 이후 3년, 학교 대신 약산에서 나무를 해 나르고 숲가마에 불을 지피는 '서울 도령' 일꾼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상경했을 때, 나는 정규 교육을 3년이나 받지 못한 무학 상태였습니다. 가회동 친척 집에서 겨우 재동국민학교 6학년으로 편입했지만, 소년 시절을 소년답게 살지 못한 그 억울함과 한은 가슴 속 깊이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청춘을 빼앗긴 채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세대의 이 처절한 기록이, 오늘날의 후배들에게 역사의 무게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서부의 장대한 품속으로

## 10일간의 그랜드 서클 여행기

■ 여주영 (명예회원)



이번 가을, 뉴욕에서 9박10일 일정으로 서부 여행을 다녀왔다. 케네디공항에서 일행들과 함께 젯블루 항공에 몸을 싣고 라스베가스 로 향했다. 약 다섯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라스베가스의 첫 인상은 오래전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리는 물론, 호텔마다 눈부시고 화려한 네온사인, 요란한 음악,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지경으로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게 변했다. 그야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할 만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오래전 황량했던 사막의 도시가 이렇게 눈부신 왕국으로 변모했다니, 세월의 힘이 새삼 놀랍고 경이로웠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금강산은 식후경, 입맛을 찾기 위해 일행은 한식당을 찾았다. 고기, 전골로 푸짐하게 먹고 나니 나른함이 찾아왔다.

숙소로 들어가니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기는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빛, 들쭉이는 음악, 그리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세계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

어떤 이는 손에 든 칩을 꼭 쥐 채 침묵했고, 어떤 이는 순간의 행운에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떤 이의 얼굴에는 희미한 절망이

교차하듯 보였다.

모두가 무언가에 흘러있는 듯 했다. 나는 마치 이방에 와있는 느낌을 안고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 황색 대지 위에서, 유타의 신비를 보다

다음날, 본격적인 그랜드 서클 여행이 시작되었다. 차를 타고 네바다를 지나 유타주로 접어들자, 오랜 전 한 번 왔던 풍경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황토빛으로 빛어진 거대한 암석과 협곡, 그리고 바람에 닳고 깎인 신비로운 형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처음 온 듯 탄성이 절로 쏟아져 나왔다.

햇살 가득한 바위 위에 올라가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미국의 거대함과 웅장함에 파묻혔다. 그곳의 바위와 흙은 단순한 돌덩이와 흙이 아니었다. 수천만 년의 바람, 비, 빙하가 만든 세월의 기록이었다.

### \* 그랜드 서클의 장엄한 풍경

유타를 지나며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모뉴먼트밸리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명소들을 차례로 돌았다. 붉은 돌산이 끝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바람은 따스했고, 하늘은 새파랬다.

어느 거대한 호숫가에서는 보트를 타고 협곡 사이를 떠다니기도 했다. 물결이 잔잔히 부서지는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 풍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마침내 그랜드캐년-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의 깊이와 웅장함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누군가 "이건 신의 작품이야."라고 탄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야." 또 다른 사람은 연거푸 "오 마이 갓"을 내지르며 기쁨을 토했다.

바람 한 줄기, 구름 한 조각마저 그곳에서는 특별함이 있었다.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정말 서부를 보지 않고는 미국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다시금 실감났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암, 협곡, 돌산들을 지나가는 동안 식사는 주로 간편하게 해결했다. 햄버거나 피자 등으로, 어떤 때는 아예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하지만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고급 식당보다도 만족하고 즐거웠다. 간단한 음식이든 정성 가득한 식사든, 여행 중에는 누구든 패스트푸드라도 맛있을 것이다.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것 이상, 함께 하는 즐거움 때문이리라.

\*마지막 목적지-로스앤젤레스

미국의 명배우들의 활동무대, 세계 영화의 심장 할리우드로 행선지를 옮겼다. 여기서 그 세계적인 명화가 제작되다니... 얼마나 많은 멋진 영화들을 보았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화들. 그 거리에서 바다에 새겨진 수많은 명배우들의 이름과 서명을 밟으며, 스크린 속 전설들을 떠올렸다. 거리는 봄비는 인파로 몸이 부딪칠 정도였다. 베버리힐스의 고급 저택가를 지나면서 또 다른 세상의 단면을 보았다.

이어 접한 월서 거리는 주로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맨하탄의 뻘뻘이 들어선 고층건물들과 대조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인상가의 간판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왔다. 일행은 우선 한국 식당을 찾아 낮은 메뉴들을 시켜 허기를 달랬다. 저녁에는 고기 부페집을 찾아 반가운 김치와 각종 고기들로 원기를 불어넣었다.

\* 민박의 즐거움, 그리고 함께한 시간

마지막 손흥민 경기가 있기 전 이들은 LA근교의 한 집을 통째로 빌려 편안하게 지냈다. 처음 숙소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일정이었다. 근처 마트에 들러 라면과 빵, 각종 신선한 채소, 소고기, 옥수수, 감자, 그리고 맥주와 물, 과일, 쿠키까지 잔뜩 구입했다. 냉장고가 빈틈없이 가득 찼다. 아침에는 라면을 끓이고, 빵을 굽고 점심은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맛있게 만들어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푸짐하게 먹었다. 낮에는 관광, 저녁 식사는 고기를 굽고, 빵과 모든 야채를 다 섞어 만든 샐러드로 즐거움을 맛보았다.

마지막 밤에는 뒤뜰에서 캠프파이어를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밤하늘이 환해지자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누군가는 또 그동안의 여행을 되돌아보며 웃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모두 깔깔대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박의 묘미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실컷 해먹고도 비용은 저렴하고, 영양은 든든하며, 무엇보다 '함께 준비하고 먹는 즐거움'이 컸다. 호텔의 편리함 대신, 사람 냄새 나는 하루가 그리웠던 우리에게 그 시간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무튼 너무 편하고 안락했다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 손흥민과 함께한 여행의 피날레

대망의 마지막 일정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LAFC 경기 관람- 이는 이미 뉴욕에서 떠나기 전, 계획된 여정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건 여행에서 느끼는 짜릿함과 또 다른 맛이였다.

아침부터 일행 전원이 들떴다. 낮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이미 뉴욕에서 떠나기 전 주문해온 손흥민 로고와 태극기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맞춰 쓰고, 일행모두가 경기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인파에 경기장은 함성으로 들끓었다. 전반전에 아무런 득점이 없어 답답함을 느낄 때, 후반전에 들어서자 마침내 손흥민의 절묘한 슈팅이 기막히게 날아오르면서 골망을 뒤흔들었다. 그 순

간,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뛰고 난리였다.

LAFC의 2대 0 승리- 이번 여행의 감동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불빛도 서부의 장엄한 대자연도 물론 좋았지만, '그날의 손흥민 골'만큼 뜨거운 순간이 있었을까. 그 순간의 환호와 전율, 감동은 이번 여행의 가장 짜릿한 클라이막스였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아스라이 지나가며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을 마감했다. 열흘간의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인간의 작음을 느끼고, 함께 웃고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은 넓다. 그 안의 자연은 인간이 감히 견줄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이다. 광활하고 웅장한 대자연과 손흥민의 멋진 골까지- 이번 여행은 끝없이 펼쳐진 미 서부의 품속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국의 깊이와 원대함을 또 한 번 강렬하게 느끼게 된 잊지 못할 여정이였다.



회원 명단 (112명 / 2025-12-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대영	정해민	허응웅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영범	조상선	
계동휘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용대	주재양	
고애자	김영만	배상규	우규환	이위곤	진봉일	
곽선섭	김우영	성기로	유무영	이전구	진병수	
권문웅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종대	천종화	
권정덕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석	최병우	
홍선경	김창수	손대훈	윤상영	이준행	최준희	
홍선경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흥빈	최한용	
권태전	김치갑	손오근	윤종숙	임도혁	최진영	
금영천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임호순	최학주	
김광수	김한중	송용길	이강홍	전문준	한민우	
김광현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정도현	한영수	
김동건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정수일	한용오	
김동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원	정준영	한태진	
김문언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이대연	안용희	
김병순	박기환	신진식	이준			
		신응남	이대연			

골든클럽 행사 2026

3월	7일(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4월	10일(목)	하이킹
	23일(목)	골프대회
5월	21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28일(목)	MOMA 방문
6월	11일(목)	피크닉 (모호크 지역)
	25일(목)	골프대회 Walkill
7월	23일(목)	골프대회 Meadows
8월	20일(목)	골프대회
9월	24일(목)	골프대회
10월	15일(목)	미네와스카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골프여행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88명 / \$8800 / 2025-12-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오순문	이영범	조달훈	허응웅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김상만 김영덕 윤종숙 이강홍 이행순 윤종숙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오용호	이용대	조승자	
계동휘	김영만	손갑수	오인석	이위곤	조상근	
곽선섭	김우영	손경택	우규환	이전구	추상선	
권문웅	김익성	손근숙	육재희	이종대	주병수	
권정덕	김정필	송용길	윤상영	이종석	천종화	
홍선경	김충정	송현자	윤선구	이흥빈	최병우	
권태전	김한중	송학린	윤종숙	이행순	최순채	
금영천	김현중	송혜순	윤현남	임도혁	최준희	
김광현	문 선	신두식	이대연	임호순	최한용	
김동건	민준기	신응남	이대영	전문준	한민우	
김동경	박기환	신진식	이강홍	정수일	한용오	
김문언	박준구	이상원	이상무	정준영	한태진	
김병순	박희병	이행순	이승준	정해민	안용희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9명 / \$13,700 2025-12-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강홍 5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상원 100	임호순 300	(2026)
권정덕 300	손경택 1500	이영범 300	전문준 500	이강홍 500
금영천 500	송혜순 200	이용대 300	정해민 2500	이행순 300
김상만 100	신진식 3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김영덕 1000
김옥수 200	오용호 300	이전구 1000	최한용 500	
김한중 300	윤현남 4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육재희
정준영	문 선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영선 (공대50)
- 곽선섭 (공대61)
- 권영대 (공대69)
- 권태전 (사대54)
- 김광수 (공대72)
- 손경택 (농대57)
- 윤선구 (치대61)
- 이상무 (의대56)
- 이위곤 (공대68)
- 이전구 (농대60)
- 정도현 (공대57)
- 한용오 (대학원)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